

# 협약 변경 후 이자수익에 원금·수수료까지 보전

## 맥쿼리 3370억원 어떻게 챙겨갈수 있느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와의 2016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변경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약 변경 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전에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대출금의 이자 수익만 챙겨갔지만, 변경 후 대출금 이자에 원금까지 챙겨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광주시는 변경협약 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면서 재정지원 원금을 1014억원 감축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쿼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이자 수익에 원금까지 돌려받으면서 맥쿼리의 수입은 증가하는 등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변경협약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자 수익에 원금 상환으로 맥쿼리 수익 보장한 1구간 변경협약-민선 6기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협약을 변경하면서 최종 용역결과로 설정한 최소수입보장금액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지원하는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사업운영비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을 도입했다. 투자비보전방식은 투자자를 변경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맥쿼리를 그대로 유지해 고금리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안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광주에서 최초로 적용됐다.

이를 통해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진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계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1014억원이 감축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맥쿼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변경협약 이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늘리고,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 챙겨갔던 방식에서 이자 수익에 원

광주시 1014억 아낀다더니

맥쿼리 수익 오히려 늘어

올해 대출금 만기 3-1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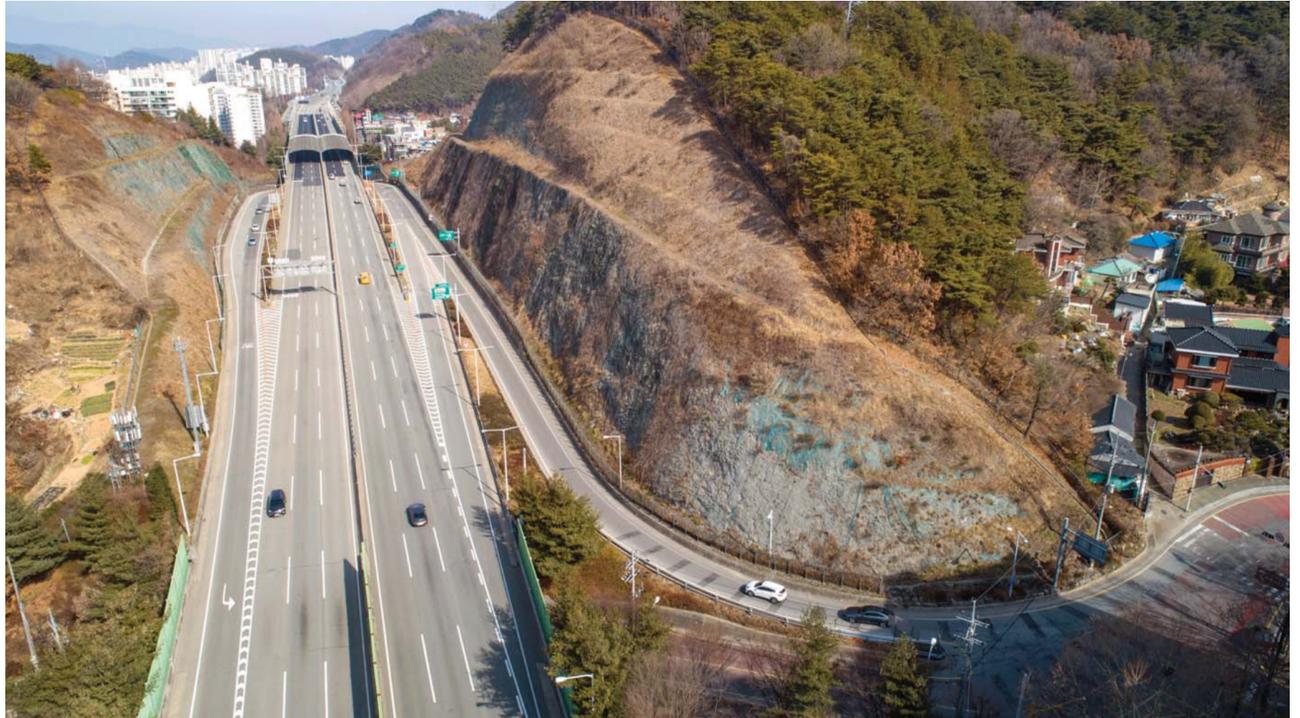
대출금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

금까지 받아가면서 맥쿼리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 맥쿼리의 10~20%짜리 대출금은 1772억여원이었지만, 2016년 2272억여원으로 500억원(10.5%)이 증가했다. 민선 5기의 법적 분쟁 당시 미지급한 이자 원금 851억원을 지급하고도, 대출금을 500억원 늘려준 것이다.

2017년부터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원금, 조기상환수수료까지 받아갔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이자 253억8000여만원, 원금 상환 265억원, 조기상환수수료 3억9,000여만원 등 52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이자 231억4000여만원, 원금 상환 111억7000여만원, 조기상환수수료 1억2000여만원 등 344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2012년 335억여원, 2013년 336억여원, 2014년 340억여원, 2015년 347억여원 등 광주시가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시기에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 거액을 수급해왔으며, 변경협약 뒤에도 이 같은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협약으로 시는 재정지원금을 1014억원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올해 대출금 만기된 3-1구간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맥쿼리는 3-1구간 운영업체 광주순환(주)의 75%(294억9476만여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맥쿼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85%짜리 선순위 대출금(2010~2019년)은 660억여원이었다. 3-1구간은 광주순환(주)가 최초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맥쿼리에 갈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에 반해 1구간은 최초 광주



맥쿼리가 100억원을 들여 제2순환도로 ‘자산IC 진출로’를 개설하겠다고 협약했는데도, 광주시가 이 공사와 관련해 설계·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자산 IC 예정 부지 일대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환도로투자(주)가 고금리 대출금의 이자만 갚도록 했다. 2016년 협약 변경 후에는 3-1구간과 같이 이자, 원금, 수수료를 챙겨갔다.

3-1구간 대출금은 2011년 586억여원, 2012년 530억여원, 2013년 508억여원, 2014년 390억여원, 2015년 337억여원, 2016년 267억여원, 2017년 174억여원, 2018년 93억여원 등으로 감소해 올해에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맥쿼리가 고수익을 위해 다시 고금리의 대출금을 광주순환(주)에 대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시의 대처가 필요하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대책으로 3-1구간, 4구간에 대해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중이며, 1구간에 대해서는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구간에 대한 잘못된 변경협약, 3-1구간에 대한 기존 협약에 얽매어 맥쿼리 측과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맥쿼리 측에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있다”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조차 맥쿼리에 지나치게 저가세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맥쿼리 100억 ‘자산IC 진출로’ 개설 약속도 안 지켜

2016년 재정경감 협의서 약속 예산 일부 광주시서 부담 논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는 지난 7년간 제2순환도로에서 3370억여원을 챙기고도 2016년 6월 광주시와의 재정경감 협의 과정에 맺은 ‘자산IC 진출로’를 자신들이 100억원을 들여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IC 진출로’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광주시가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 재협상이 되레 시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재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약속했던 ‘자산IC 진출로’ 비용도 시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4일 “제2순환도로 내 동구 자산동 통과 구간에 ‘자산IC 진출로’ 공사를 오는 2020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애초 이 진출로는 지난 2016년 광주시

와 맥쿼리가 진행했던 재정경감재협상 과정에 맥쿼리 측이 100억원을 들여 개설하고 하이패스도 설치하기로 했지만 완공 목표였던 2018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 진출로는 소태 요금소에서 두암IC 방향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광주의 핵심 교통망인 제2순환도로에서 무등산 방면 진입을 위해서 기존 두암IC를 이용했으나 IC를 빠져나온 뒤 도심으로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자산IC가 개설되면 곧바로 광주법원 진입로를 통해 무등산 방면으로 연결돼 도심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통행량이 늘어 맥쿼리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광주시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이 진입로 공사에는 72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맥쿼리가 52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설계·보상비 19억6000만원은 광주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통상 예산을 지원받는 도로공사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부지 등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대신, 맥쿼리는 26억9700만원을 들여 제2순환도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했다. 하이패스 설치를 포함하더라도 맥쿼리는 재정경감협약 당시 약속했던 자산IC 등 개설 예산 부담액 100억원에 못 미치는 79억670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광주시는 자산IC와 하이패스 공사가 애초 약속된 100억원에 못 미치면 이를 감안해 재정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의 예산을 맥쿼리에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맥쿼리가 애초 약속했던 공사비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72억3000만원에 자산IC 등을 개설하는데 광주시가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감위원이었던 김동현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자산IC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한 뒤 도로를 개설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고, 너무 많은 혈세를 받는 민간업체와 광주시가 했던 협상 조건이었다”면서 “맥쿼리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가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있는데 광주시가 ‘맥쿼리 중심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 맥쿼리와 광주순환도로(주)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

(2012~2018년 감사보고서 참조)

연도	이자수익	대출금	미수이자
2012	335억1573만원	1,772억1,074만1,000원	853억4,807만8,000원
2016	342억1411만6000원	2,272억1,074만1,000원	73억1,046만9,000원
2017	253억8887만5000원	2,007억1,074만1,000원	1억9,462만3,000원
	원금 상환 265억원, 조기상환수수료 3억9800만원 합계: 522억8687만5000원		
2018	231억4248만8000원	1,895억3,574만1,000원	6,181만3,000원
	원금 상환 111억7500만원, 조기상환수수료 1억2800만원 합계: 344억4548만8000원		

\* 광주순환도로 1구간 7년간 합계: 이자 + 원금 상환 규모 = 2568억9203만2000원

###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